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랜드마크 콤플렉스

승효상

서양에서 역사가 오래된 도시들의 원형을 추적하다 보면 거의 로마제국의 흔적, 특히 군단 주둔지를 발견하게 된다. 파리의 원도심인 시테섬, 런던 시가의 발상지인 시티, 비엔나의 빈도보나나 프랑크푸르트의 뢰머광장 등이 다 그렇다. 이들은 레기오(Regio)라고 부른 로마 군단의 캠프를 중심으로 발달된 도시들인데, 그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으니 지방을 뜻하는 Region이라는 단어도 그래서 생겼다.

카스트라라고 부른 이 캠프는, 로마에서 오는 길을 연장시킨 카르도라는 길에 데쿠마누스라는 길을 직교시킨 후, 그 교차점에 포럼을 놓고 그 정면에 사령부, 그 주변에 인슐라라는 군막사를 설치하여 담장을 두르는 게 표준적 배치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배치가 그대로 그 도시의 광장이 되고 시청사가 되었으며 완고한 성벽을 가지는 서양도시의 전형이 된다. 캠프라는 것은 원래 표준적 설계에 따라 평평한 곳을 찾아 설치하는 임시시설이다. 따라서 자연발생적 촌락이나 특별히 방어용으로 세운 곳을 제외하면 서양의 계획도시들은 애초부터 평지 위에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근세에 들어와서도 마스터플랜이라는 이름으로 건설된 신도시들은 그 기반을 여전히 평지에 둔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기능적 용도를 설정하고 땅을 평면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구조는 최고의 토지 효율을 목표로 삼은 까닭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지의 확보가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이 평지의 도시가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시각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세우는 게 랜드마크라는 인공구조물이다.

케빈린치라는 도시계획가는 도시를 이루는 다섯 가지 요소 중 랜드마크를 가장 중요한 도시시설로 거론했으며, 그 모양이 주변과 분별되고 대립될 수록 더욱 강한 이미지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서양의 도시에는 주변을 압도하는 많은 기념물과 기념탑이 있어왔고 크고 높을수록 그 상징적 가치는 더 커졌다. 현대의 모든 도시에서 경쟁적으로 세우는 마천루도 그런 산물이다.

그러나 우리가 도시를 만드는 방법은 달랐다. 예를 들어, 서울이 조선의 수도로 정해질 때, 서울이 가지고 있는 산세와 물길 등 지형적 형상이 우선적 요소였으니 이미 서울은 아름다운 자연적 랜드마크를 가진 도시였다. 집들은 이 산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양지바른 땅 위에 작은 단위로 지어져서 이루는 집합적 아름다움이 서울에 짓는 건축의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서로 어울렸고 서로를 존중하는 풍경을 이루었다.

서울만이 아니었다. 전국토의 70%가 산인 우리의 땅에 지은 지방의 마을들이 모두 그러했다. 평지는 쌀농사를 위한 경작지여야 했으므로 마을은 배산임수라는 전통적 조성방식을 좇아 산자락 아래 양지바른 곳을 찾아 만들어졌다. 그 배산임수 자체가 랜드마크였다. 지형과 물길이 다 다르듯, 지형을 따라 지은 우리의 마을들은 다 다른 랜드마크를 가졌으며 그것으로 독특한 마을의 이미지를 형성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60~70년대 이후 온 나라가 경제개발의 격랑에 휩싸여 근대화(Modernization)라는 말이 서양화(Westernization)와 동일한 말로 간주되었을 때, 개발의 광풍에 휩싸인 우리의 국토는 산이 있으면 깎고 계곡은 메우며 서양의 평지도시를 추종하여 개조되었다. 당연히 자연과 부조화하였고 주변과 부조화하였으며 우리의 삶과도 유리되어 끝내 우리의 도시는 갈등과 분쟁의 용광로가 되고 말았다. 산과 물과 건축이 어울려 마치 아름다운 산수화 같았던 우리의 옛 마을은 이제 기억으로만 남은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질 않았다. 민선의 지방자치시대에 이르러 지방도시들은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랜드마크 심기를 지금도 사생결단하듯 외친다. 심지어는 우리의 산하풍경과 전혀 다른 사막 위에 세운 두바이까지 벤치마킹하며 세계 최고, 세계 최초 같은 선정적 구호를 내세워 우리 땅의 생리와 인문적 역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니, 가히 랜드마크 콤플렉스에 걸린 것 아닌가.

한탕주의 같은 이런 천박한 개발이 끝난 후 우리가 빚은 이 부조화한 풍경을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필시, 우리의 산하와 고유한 풍경을 파괴한 반달리즘의 세대로 우리를 규정할까 두렵다.

〈건축가·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판치는 교통 무질서, 낯 부끄러운 시민의식

언제부터인가 광주시내 도로가 '중앙분리봉'과 '무단횡단 금지 분리대' 등 교통시설물로 넘쳐나고 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면서까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이유가 중앙선 침범 차량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들 때문이라고 하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에 따르면 중앙분리봉은 현재 350개소에 1만5000개나 되며, 보수비용만 연간 1억5000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무단횡단 금지 분리대는 31개소에, 비용이 3000만 원에 달한다. 시민들의 무질서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에서 운암고가도로로 이어지는 구간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경찰이 중앙선에 중앙분리봉 20여개를 설치했지만 불법 유턴과 무단횡단 등에 따라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

광주역을 기점으로 산수동·조선대·월산동·광천동에 이르는 제1순환도로 역시 중앙분리봉으로 물결을 이루고 이면도로까지 점령한 상태다. 게다가 불법 유턴과 중앙선 침범 차량 때문에 중앙분리대가 파손되기 일쑤다.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분리대도 시내 곳곳에 설치돼 있지만 이를 넘나드는 보행자들에겐 한낱 구경거리일 뿐이다.

교통시설물의 범람은 도시 경관도 문제지만 시민의식이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빨리빨리'라는 이기심으로 인해 교통질서를 지키는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시설물을 설치한들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당국도 시설물 설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신호체계와 횡단보도, 정지선 등 교통 인프라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질서 위반에 대해 엄격히 법을 적용해야 한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 이미지를 더 이상 깎아내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정부, 흑산도 경비행장 언제까지 미룰 건가

신안 흑산도 경비행장 건설이 무려 11년째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만 포함시켰을 뿐 예산조차 세우지 않는 등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안군 흑산면 예리 84만3873㎡ 일대에 활주로 1200m급 규모로 세워질 흑산도 경비행장은 인근 도서지역 주민과 연간 36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특히 관광 활성화를 통해 서남해안권 발전을 앞당기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흑산도 경비행장의 경제적 타당성은 지난 2000년과 2010년 한국항공학회와 한국항공정책연구소의 용역 결과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더욱이 정부도 지난해 확정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통해 흑산도에 소공항이 들어설 경우 오는 2017년 87만 명, 2035년 90만 명의 항공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흑산도 경비행장 건설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전문기관은 물론 정부에서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총 1400여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은 물론 지난 3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서도 제외시켰다. 한마디로 사업 추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경제성이 없는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과 함께 추진하기 위해 일부러 지원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사업성이 없는 지방공항 건설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결국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정부가 경제성이 검증된 흑산도 경비행장 건설을 10년 이상 미루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납득이 안 된다. 이러니 정부 정책을 원칙 없는 '엿가락 정책' '지역차별 정책'이란 소리가 나오지 않는가.

흑산도 경비행장은 주민편의 및 관광활성화는 물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건설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의료 칼럼

아토피 피부염과 목욕

김원영

'이런 책이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생각했는데, 정말 손에 쥐게 되는 책이 있다. 케서린 애셴버그의 '목욕, 역사의 속살을 품다'(Clean : An Unsanitised History of Washing)도 그런 경우다. 누구나 경험하듯 이런 경우 한번 든 책을 단숨에 읽게 된다.

목욕은 삶의 여러 통과의례 즉 태어날 때와 세상을 떠날 때, 결혼을 할 때 등 존재 양식이 바뀔 때 행하는 의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목욕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회가 청결(Clean)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왔다.

17세기 프랑스 귀족은 아마포 셔츠를 꼬박꼬박 갈아입고 손만 살짝 씻었다. 목욕은 거의 하지 않았다. 루이 13세가 처음으로 목욕을 한 것은 거의 일곱 살이 되어서였다. 그러나 1세기의 로마인은 하루 두 시간 넘게 물에 몸을 담그고 쇠로 만든 긁개로 기름과 땀을 제거했다. 이러한 큰 차이는 14세기 페스트로 인한 공중목욕탕의 폐쇄와 영혼을 강조하는 기독교적 분위기로 인한 육체적 부분을 경시한 것이 원인이다.

기원전 5세기 히포크라테스는 목욕을 적극 옹호했다. 그는 찬물과 뜨거운 물에 교대로 몸을 담그면 중요한 모든 체액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믿었다.

17세기 중엽 한 프랑스 의사는 "목욕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남자들에게 매우 해롭다. 목욕을 하면 머리에 수증기가 찬다. 목욕은 신경과 인대의 적이다"라고 말했다. 또 일류 의사들은 인체의 분비물이 보호막을 형성하니 몸을 구석구석 씻지 말라고 권고했다. 1830년대에는 피부에 호흡기능이 있어 모공에 때가 끼어 막히면 이산화탄소가 피부를 통해 배출되지 않아 죽을 수 있다는 개념이 유럽과 북미 과학계에 널리 퍼져 있었다.

내가 목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 때문이다. 25년 전 의과대학을 다닐 때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될 수 있으면 목욕을 하지말라고 배웠다. 그러나 최근에는 날마다 샤워를 하도록 권유한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목욕이 달라진 것은 없다. 목욕 후 3분 내에 보습제를 발라야 한다는 것이 덧붙여졌다. 바로 보습제를 바르지 않으면 물기가 증발하면서 피부가 더욱 건조해져 가려움증을 더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수건으로 피부를 톡톡 두드려 닦은 후 3분 내에 보습제를 발라 물기를 피부가 품고 가게 해야 되는 것이다. 어찌 보면 보습제가 피부에 보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목욕 자체가 피부에 보습을 해준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이 밖에도 목욕은 피부의 이물질을 제거해 주고 몸과 마음을 느긋하게 해주어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 나는 아토피 환자들에게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3번 올바른 칫솔질이 중요하듯이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서는 올바른 목욕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목욕을 잘하지 않으면 그 어떤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

증상이 심한 경우 탕목욕도 권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탕에 있어야 할까. 손가락 끝에 주름이 잡힐 때까지이다. 물론 3분내 보습제를 바르는 것은 똑같다. 샤워와 목욕물의 온도도 중요한데 감기 걸리지 않을 정도로 미지근해야 한다.

목욕탕에서 유레카를 외쳤던 그리스 과학자 아르키메데스는 "긴 지렛대와 지렛목만 있으면 지구라도 움직여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약간 패러디해서 "목욕탕과 보습제만 있다면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해 보이겠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들내과 원장〉

기고

불신 키우는 '호남저속철 꼼수'

김호남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경제성만으로 따질 수 없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분권화를 꼭 만들어 내겠다."라고 다짐했다.

당시 이용섭 국토부 장관은 전남건설협회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21세기 국가산업은 철도산업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종환 현 국토부장관은 오송~송정 구간을 2014년, 송정~임성 구간을 2017년에 완공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말했다.

친환경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정의되는 역세권 개발 사업은 역세권과 역세권을 빠른 시간대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왜 송정~임성 구간이 2017년인가? 정치권에서는 한심스럽게 뒷짐만 지고 있는가? 시민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내심 불만스럽고 걱정스러웠지만 참으면서 지켜보고자 했다. 종착역에 있어야 할 차량기지가 송정역으로 결정되었다는 발표에도 침묵했다.

국토부가 송정~임성 구간을 기존 철도 노선에다 시속 180㎞ 정도의 저속철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자 목포시민들이 충격을 받은 듯 아우성이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무지하기로서니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도지사가 '무안공항을 경유하라'하고 나주도 '통과역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함평 주민들이 '함평도 끼워 넣자'고 하자 경제성 등을 들어 저속철로 계획을 슬그머니 바꿔 발표한 것 같다.

그러나 꼼수는 언젠가 더 큰 후유증과 역풍을 부른다. 분과 초를 다투는 역세권의 개념과 미래 동력이 될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원칙과 개념을 중시해 광주 송정과 목포 구간을 동시 개통해야 한다.

사회 곳곳에서 MB 정부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제일 위험한 상황은 희망이 없어진 상황이다. 21세기 철도산업의 혁명적 변화를 기대했던 지역민에게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해서는 안 된다.

프랑스 피에르 모호헴 총리는 시골마을 릴이 고향이다. 그는 총리직을 그만두고 시장에 출마해서 TJV가 릴을 통과해 동유럽과 북유럽을 연결하는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여 도시를 리모델링한 드라마 같은 인물이다. 그의 노력으로 프랑스 릴은 죽어가는 도시에서 매년 인구가 5000명씩 늘어나는 역세권 개발의 성공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은 백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접근하고 만들어져야 한다.

임성역이 역세권으로 개발되면 도시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 꼴이다.

역세권으로 개발된 이익을 구도시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철도 연결도 가능하다. 정부가 임성역을 종착역으로 상징적 개발에 나서서 투자 계획을 발표해도 대다수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철도 공사가 서울시와 합의하여 용산에 국제 업무시설 지구를 건립해서 물류 복합형의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골일수록 재정이 열악하여 정부 재정에 의존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안목과 의지만 있으면 SPC 등 풍부한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지역 거점과 역세권을 연결하는 사업이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 리 아이아코카 크라이슬러 회장은 아무리 훌륭한 판단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다.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을 유비쿼터스로 구축하고자 하는 선구자들이 나서야 한다. 우리는 공감의 시대에 살고 있다. 미래가 있다고 믿는 자에게 현실은 열리는 법이다.

〈목포중앙고등학교 이사장〉

無等鼓

'나가수 앓이'

최근 한달여의 공백을 딛고 방송된 일요일 MBC 오디션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가 무한 감동을 선사하며 폭발적 관심을 끌고 있다. MR을 틀어놓고 찍어내듯 똑같은 무대만 보여주던 음악프로그램이 보다 더 높은 완성도를 위해 모험을 강행하는 모습에 시청자들은 열광했다.

'나가수' 방송 후 시청자들은 소름이 돋고, 가슴을 후벼 판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들의 노래는 우리의 가슴, 혹은 가슴 보다 훨씬 더 아래 그 어딘가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울림으로 우리의 감정, 혹은 우리 존재의 심연을 거세게 흔들었다.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했고, 찌든 일상에 지친 심신에 정열의 생기를 불어 넣었다. 가수가 존재하는 이유와 노래와 음악이 아름다운 까닭을 보여줬다.

임재범(48), 이소라(42), 박정현(35), BMK(38), 김범수(32), 윤도현(39), 김연우(40) 등 가수 7명은 명불허전 이었다. 이들은 단순히 청중들의 귀만 즐겁게 한 공연이 아닌 혼신의 열정을 쏟아냈다.

자신의 스타일을 탈피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시청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렬한 무언가를 펼쳐 놓았다. 이소라가 성량을 폭발시키고, 김범수가 비주얼에 신경 쓰고, 임재범이 절절한 가창력에 대북을 동원하면서 임팩트 있는 무대를 구성했다.

이들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이 아니었다. 가창력 경연이 아닌 자신의 음악세계를 마음껏 표현해 승화시켰다. 가히 가신(歌神)들의 무대였다. 특히 가신들도 경쟁을 통해 더 발전하고 진화해야만 팬들로부터 외면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가수의 아이템이 '늘씬한 각선미', 아찔한 뒤태, 초콜릿 복근, '하의 실종'이 아닌 노래와 삶에 대한 성찰과 감동, 공감과 울림을 찾는 여정이어야 함을 제시했다. 경쟁이 계속될 수록 '나가수앓이'는 계속 될 듯 하다.

/최재호 정경부 차장 lion@kwangju.co.kr

패스트푸드에 길든 아이들 '밥상머리 교육' 필요하다

아이들이 밥 대신 패스트푸드만 찾는다. 엄마들은 "워낙 먹지 않으니, 좋아하는 패스트푸드라도 사줘야 하지 않느냐", "밥상을 차려도 아이들이 먹지 않아 결국 음식 쓰레기가 된다"고 말한다.

이미 패스트푸드에 길든 아이들이 전통적인 밥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집에서 차리는 밥상은 어떠한가? 밥과 국, 김치, 찌개는 기본이고, 여기에 나물, 구이 등이 곁들여져 있다. 먹을거리가 부족하던 그 옛날에도 우리 어머니들은 음식의 재료와 조리법을 다양하게 해 맛있는 음식을 차려내고 가족들의 건강을 관리해 왔다.

한 가지 음식으로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다른 음식과의 조합을 통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즉, 엄마가 차리는 새로운 밥상이 아이들을 위한 맞춤 건강식이 되는 것이다.

영양학적 측면뿐만 아니다. 우리 말에 '밥상 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여기에서 음식의 소중함과 식사 예절을 터득하게 된다. 또한, 밥상은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잘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무작정 우리 아이들에게 밥 안 먹는다고만 할것이 아니라 엄마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밥상을 차려주자.

그리고 가족 여행 스케줄을 짜듯, 가족들이 집에서 함께 밥 먹는 날을 미리 잡아 보자. 그날 먹고 싶은 음식을 정하고, 장보기, 요리 등을 함께 해보자.

▲윤용덕·광주시 서구 덕흥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FAX	222-8005〉
정경부	2200-612	〈FAX	222-0195〉
〈대표 FAX	222-4918〉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회부	2200-616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FAX	227-9500〉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7-9500〉
여론매체부	2200-621	디자인	2200-536
체육팀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사진부	2200-693	기획사업국	2200-555
조사부	2200-571	〈FAX	02-773-9335〉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